

■ 고사성어 ⑫



문전성시 (門前成市)

문 앞이 저자[市]를 이룬다는 뜻으로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붐빈다는 말. 전한(前漢) 말, 11대 황제인 애제(哀帝 :B.C. 6-1) 때의 일이다. 애제가 즉위하자 조정의 실권은 대사마(大司馬 : 국방 장관) 왕망(王莽 : 훗날 전한을 멸하고 신(新)나라를 세움)을 포함한 왕씨 일족으로부터 역시 외척인 부씨 (傅氏 : 애제의 할머니), 정씨 (丁氏 : 어머니) 두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애제는 동헌(東賢)이라는 미동(美童)과 동성연애

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중신들이 간했으나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중 상서 복야(尙書僕射 : 장관) 정송(鄭崇)은 거듭 간하다가 애제에게 미움만 사고 말았다. 그무렵, 조창(趙昌이라는 상서령(尙書令)이 있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아첨배로 왕실과 인척간인 정송을 시기하여 모함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는 어느날 애제에게 이렇게 고했다.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정송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사온데 [門前成市]’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오니 엄중히 문초하시오소서.”



Byang Hyeon 權承世

애제는 즉시 정송을 불러 물었다. “듣자니, ‘그대의 문전은 저자와 같다 [君門如市]’ 고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예, 폐하. ‘신의 문전은 저자와 같 사오나 [臣門如市]’ 신의 마음은 물같이 깨끗하옵니다. 황공하오나 한 번 더 조사해 주시오소서.” 그러나 애제는 정송의 소청을 묵살한 채 옥에 가뒀다. 그러자 사예(司隸)인 손보(孫寶)가 상소하여 조창의 참언 (讒言)을 공박하고 정송을 변호했으나 애제는 손보를 삭탈관직 (削奪官職)하고 서인 (庶人)으로 내쳤다. 그리고 정송은 그 후 옥에서 죽고 말았다.



명정지수 (明鏡止水)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이라는 뜻으로 티 없이 맑고 고요한 심사를 이르는 말. <장자(莊子)> <덕충부편(德充符篇)>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 왕

태(王賈)라는 학덕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교의 비조(鼻祖)인 공자와 맞먹을 만큼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인 상계(常季)는 불만스럽다는 듯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율자(兀者)는 어

德必有隣 ⑤



玄岡 權錫祚

(사)한국서화예술인협회 초대작가 (사)대한민국 낙동예술협회 초대작가 “ ” 부이사장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⑧

단풍나무

■ 靑南 權寧漢 (인동전통문화연구회장)

ؤ나무, 뽕나무,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고, 은행나무, 느티밀나무는 노랗게 물듭니다 . 이들 모를 작은 열매들은 나뭇대로 붉게 혹은 노랗게 생긴 모양에 맞춰서 예쁘게도 땀시를 자랑합니다 . 온 천지가 모두 푸르르던 여름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던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은 주변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단풍이 든 다음에야 그 푸르름이 더욱 돋보이며 더 청청합니다. 그 웅장한 바위산에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갑자기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 가지 단풍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으뜸인 것은 역시 단풍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 나무입니다. 키는 약 15m가량 자라고 굵은 것은 지름 70-80cm까지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 대문산, 백양산 등에는 우리나라 원산인 단풍나무가 자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잎의 크기는 5-10cm가량이고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진 잎은 끝이 그지없습니다. 단풍은 마치 자기의 죽음을 장식하는 나무 같기도 합니다. 최후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송고한 애국 열사나, 도통한 성인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한세상을 사는데, 젊을 때 가장 화려하고, 활동적으로 의욕을 갖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향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생을 통하여 이룩한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닦은 많은 도움이 되게 그들에게 남기고 내가 모은 재산을 사회 복지를 위해서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은 인생으로써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천중학교 출신입니다. 김천중학교를 지은 최송설당은 이조 마지막 임금인 영친왕의 유모였습다. 영친왕께서 일본으로 가실 때 궁에서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하사금으로 김천에다가 중학교를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60회 이상의 졸업생을 내고 있는 김천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배움의 전당으로 존속될 것입니다. 만일 송설당께서 그 돈으로 일신의 영예를 위하여 다른 곳에 썼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빛나는 김천중학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회향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가을 땅에 떨어져서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것, 이러한 어쩔고 저러면 어쩌냐고 그냥 시들어서 떨어지는 딱딱나무나 기타 여러 잡목들과는 달리 비록 땅에 떨어져 없어질 몸이라도 곱게 단장하고, 곱게 화장하고 최후의 순간까



지 정성을 다하는 단풍나무의 정신은 정말로 숭고한 선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 몸을 불태워 가며 가을 동산을 이룬답게 꾸미는 단풍나무의 정신이야말로 살신성인(殺身成人)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심히 보던 단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붉게 물드는 나무는 잎 속에 클로로필이 분해되고 새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생기기 때문이고, 황색으로 물드는 잎은 크산토티올이라는 색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두가지의 간단한 색소로 인해서 단풍이 드는 것은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색소의 작용으로, 가을 동산을 눈부시게 곱도록 장식한 요묘한 단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사람들로 붐비던 산, 계곡의 물은 손을 넣어 보면 뽕속까지 저리도록 맑고 싸늘합니다. 그 물 위로 한잎 두잎 단풍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면 마치 계절의 신이 우리에게 가을의 고운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물에 떠내려 오는 단풍잎 한 장 속에 천지의 대도와 통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어느 산야, 어느 들에도 단풍은 가득합니다. 우리를 마음 속에 단풍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가 문제지 단풍은 도처에 넘치도록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이 신비한 선물을 잘 받기 바랍니다.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생명

생명의 중요성, 존엄성, 절대성 등에 관하여는 더 설명할 나위가 없는 줄로 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 생물,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 자연계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 한강에서 흐르는 물에도 생명이 있고 북한산에도 생명이 있다. 사람의 경우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며, 생명을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다. 생명의 정의: 생명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제까지 내려진 정의를 살펴보면 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생물의 특성으로 열거되어 온 것은 유기물질을 바탕으로 구성된 생체 유기물질(生體有機物質)의 생산,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되는 성장·구조·조절성·자극반응성·물질대사·증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가지고 생명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 상기한 생물의 특성을 기계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생명을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널리 알려져 있는 정의로는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에 의한 정의가 유명하다. 그는 생명을 ‘단백질의 존재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간주하였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대사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생물체가 끊임없이 물질의 출입과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전환 및 출입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형



평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생체론(生體論)에서는 이러한 동적 평형(動的平衡)과 위의 계층구조(階層構造)를 생명현상의 두 가지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동적 평형이 뜻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붕괴 즉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생(生)과 사(死)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인체가 50조(50)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포들의 사망과 재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핵산(核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단백질 또는 물질대사만으로 생명을 정의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핵산 중에서도 DNA는 유전자의 본체이며 증식의 기초가 되는 물질이므로 물질대사보다는 증식이 생명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생명이란 제어(制御) 바로 그것이다”라는 정의도 제안되었다. 생물과 자동제어기계(自動制御機械)가 혼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인간이 부속물로 간주하면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서 왈가왈부할 식자는 없을 것이다. 생명은 무조건 존엄한 것이다. 몇 번이고 소개하였지만 불존(佛尊)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7보를 걸으면서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말하였다는 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직역을 하면 “자기만이 존귀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자기라는 사람은 하나뿐이니 존

귀한 존재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몇 번이고 밝혀왔다.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나의 체합담을 한 두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로는 6.25전쟁 때 미 제 9군단 민사처병원에서 일하였던 때의 경험이다. 이 경험담도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지만 나는 6·25전쟁 중 1951년 9월부터 3년간 미 제 9군단 민사처병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미 제 9군단 민사처병원장’, 회고록 ‘또 하나의 언덕’ 개정판, 신원문화사, 2000, P. 130참조) 당시 우리나라에는 미8군 제 1군단·제 9군단·제 10군단과 해병단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제 1군단이 서부전선, 제 9군단이 중부전선, 제 10군단이 동부전선, 해병단이 수도권을 방위하고 있었다. 3개 군단과 해병단은 각각 민사처를 설치하고 대민사업을 담당시켰다. 대민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물론 의·식·주 해결이었는데 전시 중이었던 당시에는 ‘식’ 문제가 우선적이었다. 그런데 미군은 다른 무엇보다도 병원을 먼저 세웠다. 뽕뽕뽕 해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병원이라야 천막병원이지만 어쨌든 미군인들은 병원(춘천 소재, 1952년 포천으로 이전)과 산하 진료소(청평·가평 2개 소)운영에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느 날 밤중에 돌연 후퇴연습이 시작되었다. 캄캄한 밤에 환자를 이송하는 연습이었다. 나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그리고 많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당시 9군단장 켈킨스 장군(Reuben E.Jenkins, 3성 장군)은 나를 몹시 귀여워하였다. 연습 다음날 군단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공급했던 점을 물었다. “군단장님, 군대에 후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군은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여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국전 초대작가

권의철 초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비구상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동양화가 「권의철 초대展」이 지난 8월1-31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48 영등포갤러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영등포지점 주최로 성황리에 열렸다. 추상화에 대가인 그는 오랜세월의 풍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물의 흔

적에서 모티브를 찾으며, 그 형태의 일그러진 형상과 물성의 원형질적인 현상 등에서 자신의 심미안과 혼자의 사유공간을 통해 발현되는 사고의 영역을 점목시켜 하나의 창작된 화면으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또한 작업은 언제나 역사물에 대한 실재하지 않는 의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미술평론가 박명인 한국미학연구소대표는 권작가는 “문자의 형상이나 암각화의 물상들이 은유하고 있는 시간성은 바로 수 천년의 역사를 예측하기에 충분하고 오늘에 와서 그러한 역사적 이미지가 과거인과 현대인의 표상으로 비교될 때 인간의 원초적인 이상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했으며 화가 선학균 관동대 명예교수는 권의철의 작품세계는 자연현상인 비와 눈,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오래된 비석의 흔적 시리즈를 즐기차



게 천착시키고 있는 중국 노장(老子) 사상의 무위자연론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만의 고유한 조형성은 대상물이 지닌 형태의 뚜렷한 변신추구와 변형을 시대적 현대감각을 추상적으로 도출시키고 있는 참신한 제작기법과 창의적인 형상의 표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한편 권의철 (69·상주·36世, 북야공파) 씨는 엄친 권오현씨 장남으로 태어나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1974년 작품을 국전에 출품해 특선 및 입선 7회와 예술의 전당, 조선일보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20회, 영등포미술협회·서남미술연합회장으로 현대작가 초대전, 서남미술연합축전 등을 여러차례 열면서 이나라 문화창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비구상심사위원장, 운영위원, 서울미술 대상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홍익대 동양화과동문전 고문, 국전작가회 이사, 신사임당택전 이사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풀꽃 나무들아」

권순채 시집발간

권순채 향토연구가, 「풀꽃 나무들아」 시집을 지난 4월25일 한국신춘문예협회(주)으로 발간했다. 농촌을 좋아하고 농사짓고 살아가는 권순채 시인이 풀과 꽃 나무들에 대한 107편의 시를 썼다. 풀과 꽃 나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며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잘난 사람 되기보다는 가장 못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최고는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아릅답고도 단단한 탑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바쳐 향을 사른다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선의로서 남을 돕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순채씨는 2004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받았으며 저서로 「토박이 땅이름」 외 4권이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이달의 시

권장섭 시인 (주)정수철장 대표이사

정숙한 미술처럼 다가와	날아도 구름으로 날 수 없고
살포시 먹고	내려도 미술처럼 내려지듯 함을
감쌀듯 두루룩 묻듯 널어차려매음	애꿎은 물부림으로 뒤척이면서
자연의 경한음 작고 작은 분발로	영국어언가 되고
숫아	영국어꽃이 되는
흐르듯 날 듯	귀향의 아픔으로
안테의 자러를 서성이고 있다	잠시나마 이 공간을 머물다간다